특집 — 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여론조사 · 학술회의

경주시민도 문화재 보호 '가장 중시'

고속철도 경주통과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 우회노선에 대한 지지가 도심통과 노선에 대한 것보다 큰것으로 드러났다.

경주발전정책연구소(소장 김정열)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경주시민 400명(남:229명, 여:171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속철도 경주통과에 대한 찬성이 90% 반대가 7.5% 잘모르겠다가 2.5%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다수가 경주통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통과를 지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노선을 물은 결과 경주를 통과하면 어느 노선이라도 상관없다(44.2%) 건천우회노선(27.5%) 선도산앞을 지나는 노선(22.2%)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그동안 경주시 당국이나 상공회의소등이 경주시민 절대다수가 선도산앞을 지나는 노선(도심통과노선)을 지지한다고 중앙정부, 언론, 시민들에게 홍보한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노선 및 역사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을 묻는 설문에서는 문화재 보호가 37.5%를, 도심과의 짧은 거리등 시민이용편의가 33.9%를, 신시가지 건설에 유리가 25%를, 비용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이 3.6%로 각각 밝혀져 문화재 보전때문에 건축물 고도제한, 발굴비용부담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문화재에 대한 애착과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의 '문화재보호' 응답자의 선호노선을 분석한 결과 건천우회노선(38.5%) 어느 노선이든 상관없다(32.6%) 선도산 앞을 지나는 노선(14.8%) 잘모르겠다(14.1%)로 나타나 건천우회노선과 문화재 보호와의 상관성이 무척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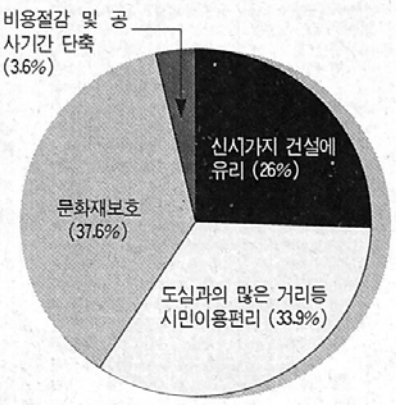
또한 고속철도 경주통과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주를 비롯한 울산 포항등 동해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7.2%나 차지해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을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편리한 교통시설의 이용이 32.8%,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14.7%, 문화재 보존에 동참해온 시민들의 숙원이 5.3%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가 93명(23.3%) 30대가 144명(36.0%) 40대가 80명(20.0%) 50대가 45명(11.3%) 60대가 21명(5.2%) 70대가 17명(4.2%)인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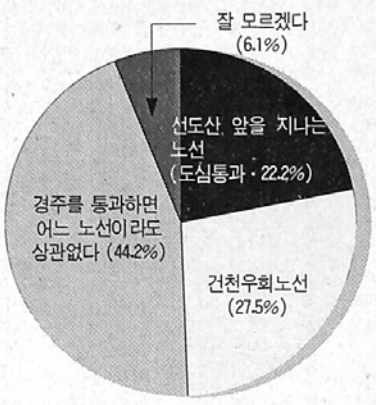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정열 소장은 "정부는 경주시민들이 노선결정의 고려사항으로 문화재 보호와 시민이용 편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각종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이같은 요구가 반영되는 최적의 노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차제에 모든 경주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칭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고속철도관련 제반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경주=이윤호 기자

경주발전정책연 400명 전화여론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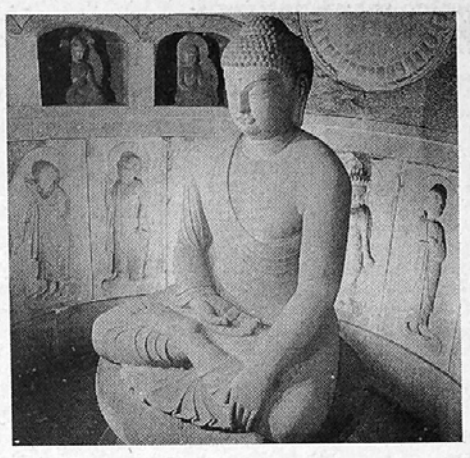


◇고속철도노선 및 역사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노선

도심통과보다 건천우회노선 지지 많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석굴암 본존불

석굴암 세계유산 등록 '경주고속철' 국제 관심사

불교 · 학계, 정부에 보존책 적극건의

불국사(사적, 명승 제1호) · 석굴암(국보 제24호)과 해인사(사적, 명승 제5호) · 팔만대장경판(국보 제32호) 및 판고(국보 제52호) 그리고 종묘(사제 제125호)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됨에 따라 고속철도 경주도심지 통과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유네스코산하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이사국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총회에서 이들 문화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세계인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 이로써 '문화재 보호냐' '지역경제 우선이냐'를 두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속철도 경주도심지 통과여부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고속철 경주통과 백지화운동본부 이기영 위원장은 "경주의 불교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국가적으로 자랑스런 일이다"며 "만일 고속철도가 경주 도심지를 통과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수치스런 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주의 불교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주지역 주민과 불교계, 학계는 세미나, 여론조사를 통해 고속철의 경주 도심지 통과를 적극 반대하며 제3노선의 채택을 정부측에 강력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내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등록제도는 유네스코가 75년부터 협약 가입국의 유산가운데 오늘의 인류가 뚜렷하게 보존할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는 유산을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재하는 제도이다.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면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기술 · 재정적 원조를 받을 수 있고 세계유산 협약국이 매5년마다 그 보전상태를 모니터해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전관리가 가능하다.

현재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문화유산 3백26개를 비롯 자연유산 98개, 복합유산 16개등 모두 1백개국 4백40개가 등록돼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만리장성 진시황릉 명청대궁전 라사폰텔라궁등 14건과 일본 5건, 인도 21건, 인도네시아 4건, 필리핀 2건, 태국 4건, 베트남 2건이 등록돼 있다. 이번에 3건의 국내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국내 처음이다.

한편 문화재관리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서라벌문예회관에서 세계문화유산등록 기념강연회를 갖는다.

'높은 문화재 보호의식' 뜻밖 성과

인터뷰 경주발전정책 硏 김 정 열 소장

"의외의 결과에 저도 놀랐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경주시민들의 문화재 보전의식은 높았습니다."

자신도 문화재 보호법의 희생자라고 밝힌 김정열 소장(경주발전정책연구소)은 여론조사결과 건천우회노선 지지가 도심통과노선 지지보다 더 높은 것에 대해 의외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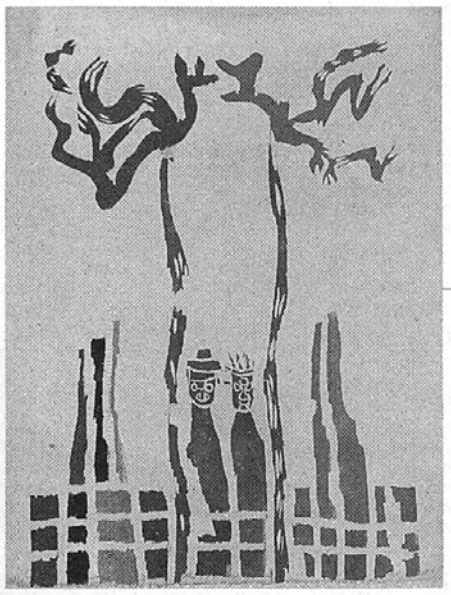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적안배를 고려했다는 김 소장은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천읍, 외동읍등 시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인구비례에 따라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건천에서 화천을 지나 내남을 통과하는 수정된 건천우회노선(제3의 노선, 경주경실련案)을 설문에 포함시키지 않은데 대해서는 여론조사당시 제3안이 발표된지가 오래되지 않아 시민들간에 인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중지를 모은다음 한목소리를 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속철도 노선문제로 야기된 관계 학계 상공계 시민단체들간의 감정대립 양상을 불식시키고 중지를 모으기 위해 본조사를 기획했다는 김소장은 정부나 시 당국이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 대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

고속철 경주통과 반대 지상전



저 높이 나는
새의 슬픔을
그대는 아시나요

박찬갑 作

'불꽃' '혼의 소리' '하늘새' 등을 주제로한 조각작품전을 77년이후 줄곧 열어 왔다. 90년대 들어 '저 높이 나는…' 시리즈의 이벤트도 열어온 박찬갑씨는 고속철도의 경주통과를 반대하는 민족환경운동 불교예술인연합회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팔공포럼' 서도 제3노선 채택

문화재 보호 · 신도시 건설 최적안

대구大 전경구교수

고속철도 경주노선 문제와 관련 건천에서 화천을 지나 내남리를 통과하는 제3의 노선(경주 경실련안)을 지지하는 논문이 한 포럼에서 발표됐다.

지난 2일 대구 아리아나 호텔에서 '고속전철이 대구 경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7차 팔공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경구(대구대 지역사회 개발학과)교수는 '경부고속철도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구 경북의 대응전략'이라는 논문에서 경주노선 선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문화재 파괴정도와 경주역사의 위치를 전제했다.

또한 경주역사의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원칙으로서 문화재 보존, 고도경주 보존, 관광 · 여가산업의 촉진, 환 동해권의 서비스 거점기능 확보, 환 동해권의 접근성 용이 등을 들었다.

이같은 원칙하에 전교수는 경주역사는 건천인근에 경주 포항 광역권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할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곳에 역사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 및 신도시 건설의 최적안으로서 건천읍에 역사를 두는 제3의 노선을 지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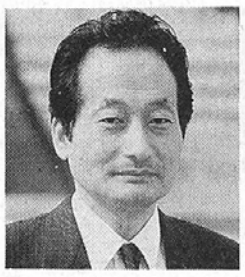
나아가 전교수는 낙후지역인 경북 서북부의 개발을 위해 대전과 대구의 가운데인 김천을 새로운 정지역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토론에 나선 제갈돈교수(안동대 행정학과)는 고속철도가 이미 잘 살고있는 지역만 통과한다고 전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배려를 주장했고 박광국교수(영남대 행정학과)는 지역간 형평성문제외에 생태계파괴와 스트로우(Straw)효과에 의한 부정적효과를 거론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박교수는 사회발전단계가 경제에서 시작해서 정치, 복지, 문화로 나아간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문화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2명의 발제자와 12명의 토론자가 참석한 이날 포럼은 제3노선을 포럼의 공식견해로 채택했다.

팔공포럼은 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재)지역발전연구센터가 주관하는 학술모임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소장파 학자및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황수영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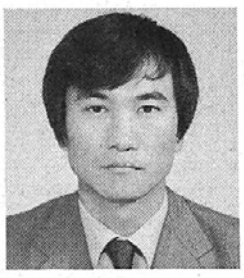


◇강우방 실장

◇홍광표 교수

◇장충식 교수

◇김복순 교수



◇신종원 교수

'95 신라문화제 학술회의 요지

경주狼山 절터 · 왕릉 즐비한 불교성지

"기존 철도 · 도로 이전 역사교육장으로 보존 활용해야"

경주시와 신라문화선양회가 주최하고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가 주관한 '신라와 낭산(狼山)' 주제의 95 신라문화제 학술회의가 지난 8~9일 이틀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신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불국사 석굴암의 세계문화유산등록 축하를 겸해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경주 낭산이 그 중요성에 비해 남산(南山)만큼 조명을 받지 못하고 신라사 연구에서도 소외되어온 현실을 감안, 낭산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역사고도인 경주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편집자 주〉

낭산은 신라 왕경(王京)의 중심에 위치했던 불교 성지로서 수많은 사찰(터) 왕릉 등이 현존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신라 상고기 낭산에 있었던 신유림(神游林)의 존재로 부터 불교가 전래되는 중고기의 선덕왕릉과 불교사상, 그리고 나 · 당전쟁을 겪은 사천왕사와 망덕사, 문무왕과 능지탑(陵旨塔), 의상의 출가 및 중대(中代)왕실의 원찰(願刹)이었던 황복사 등 각시대별로 낭산의 성격과 기능 등이 논의됐다. 또 낭산의 보존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8일 학술회의에서는 동국대 장충식교수와 강원대 신종원교수, 황수영 전 동국대총장, 강우방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신라 낭산 유적 · 유물의 제문제'와 '낭산과 선덕여왕', '신라 낭산의 능지탑에 대하여', '능지탑 사방불 소조상의 고찰'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신종원교수는 "낭산 중심의 불교적 우주관인 '낭산 도리천(刀利天:세계의 축으로 생각되는 수미산 위에 있는 天, 일명 33天)설'을 완성하고 이에 입각해 사천왕사를 조성한 스님이 명랑(明朗)스님"이라면서 "신라인들은 인도의 우주관을 그대로 신라에 설정, 경주 낭산을 수미산으로 비정했다"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그러나 '신라 불국토설'을 확립하고 이 신념에 입각해 황룡사9층탑 건립을 건의하는등 실제 정책을 시행한 고승은 자장율사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장충식교수는 낭산에 위치한 불교 유적 · 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천왕사지를 중심으로 한 조형사(造形史)적 분석을 통해 "호국사찰인 사천왕사가 이 산에 등장하는 시기(679)를 기점으로 낭산의 불교유적은 점차 전산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신라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틀째인 9일에는 한국교원대 김상현교수가 '사천왕사의 창건과 의의'를, 동국대 김복순교수가 '의상과 황복사'를, 동국대 홍광표교수가 '경주 낭산의 보존방안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김상현교수는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명랑스님은 낭산에 사천왕사를 건립하고 여기서 밀교의식인 문두루법(文豆婁法)으로 기도하는등 당의 세력을 물리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신라 중대에는 황룡사보다도 오히려 사천왕사가 국가불교의 중심역할을 떠맡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광표교수는 낭산의 역사환경을 경주 전체와의 상관관계에서 분석하고 구체적인 보존방안을 제시했다. 홍교수는 "낭산은 신라 3산5악사상을 전개하는 중심지로서 중시되었고 심지어는 '신유림'이라고 까지 하여 왕실은 물론 전신라인에게 널리 숭앙되었던 성산이었다"며 "왕경내에 위치한 주요 유적들이 모두 이 산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정해져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교수는 또 낭산보존을 위해 사천왕사지의 금당지와 강당지를 가로질러 개설된 철로와 사천왕사지 전면의 7번국도의 노선변경을 주장했다. 이밖에 △낭산전역과 주변지역을 보존특구로 지정할 것과 △낭산 전역에 대한 발굴조사 실시 △보존과 함께 역사교육 공간으로 개발 △낭산전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매입함은 물론 △복원과 관리를 위한 당국의 재정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